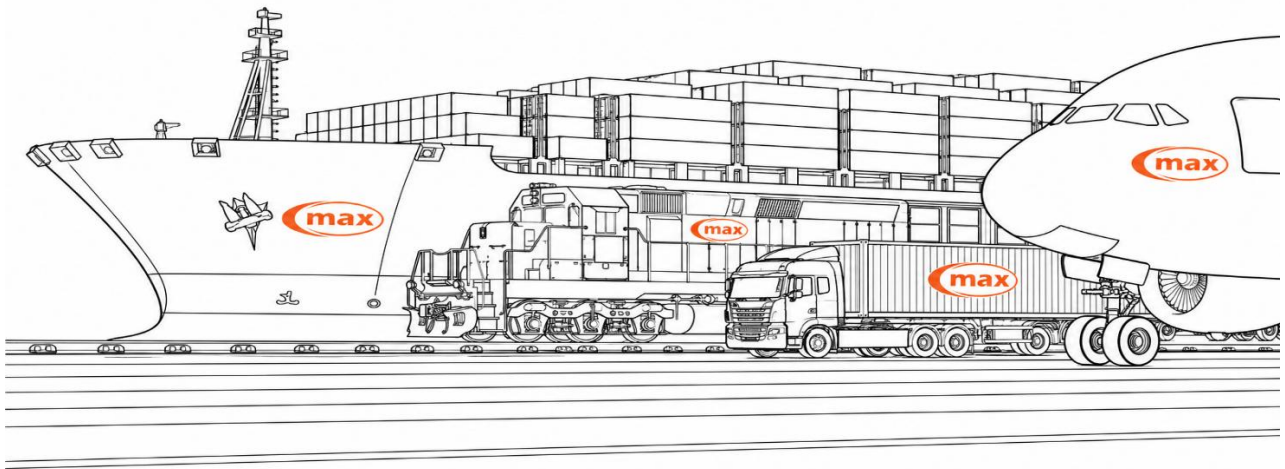




지점소식 📌

🌸 서울지점

- 서울지점은 5~6 월 미주향 Spot Charter 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7 월부터 LAX, CHI 중심의 Regular Charter 를 본격 개시, 안정적인 스페이스 공급 역량 강화
- 2026 년 8 월 17 일 : 광복절 대체휴일

🌸 폐낭지점

- 2026 년 8 월 25 일 : 마호메트 탄생일
- 2026 년 8 월 31 일 : 독립 기념일

🌸 방콕지점

- 2026 년 8 월 12 일 : Queen Mother's Birthday

🌸 파리지점

- 2026 년 8 월 15 일 : 8 월 15 일 : 성모승천일 (Assomption)



서울지점

- 미·이란 MOU 체결 (6/17) 및 60일 추가 휴전 합의로 중동 긴장이 완화됐으나, 선박 운항 정상화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
- 한국 6월 수출 사상 최초로 월간 1,022억 달러를 돌파,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약 200% 급증한 444억 달러를 기록하며 AI 수요가 수출을 견인
- EU는 7월 1일부로 De Minimis (소액면세, 150유로 이하)를 전면 폐지하고 HS Code 당 3유로 균일 관세를 도입, 시행 첫 주 홍콩발 유럽행 물동량이 전주 대비 12% 감소하는 등 단기 충격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7월 24일 임시 보편관세 종료 후 301조 기반 국가별 확정 관세 (한국 포함 약 10~15% 예상)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품목별 세율과 시행 시점에 따른 수출 물동량 변동에 주의가 필요

부산지점

- 최근 (7월 20일)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 수정 고시에 따라 기존 부산신항 LNG 벙커링 부지가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로 확대 조성 예정, 글로벌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부산항을 거쳐 가는 선박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홍콩지점

- 홍콩, 나이트프랭크에 따르면 홍콩의 초고가 주택 시장은 올해 1분기에 두바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증가하여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분기 동안 홍콩에서 초고가 주택 94채가 거래되어 전분기 대비 16% 증가, 총 거래액은 17% 증가한 18억 4천만 달러를 기록
- 홍콩투자공사(HKIC)가 지난해 총 64억 홍콩달러 (한화 약 1조 2,288억 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5% 급증하여 2025년 말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의 순 내부 수익률(IRR)은 14%에 달함
- 홍콩 상반기 관광객 2,671만 명 돌파, 홍콩관광청(HKTB)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홍콩을 찾은 누적 방문객 수가 2,671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여 홍콩의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또한 홍콩은 상반기에만 100개 이상의 대형 국제 컨벤션 및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숙박

을 동반한 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방문객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

❁ 방콕지점

- 한-태 FTA 는 금년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이나 발효 전까지는 한-아세안 FTA-RCEP 원산지증명으로 관세를 절감하고 있음
- 7 월 말부터 태국 전역에 강한 폭우와 돌발홍수 경보 발효, 8 월까지 우기 지속 전망

❁ 페낭지점

- 2026년 8월은 3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연간 예상 성장률인 4.5%~5.0% 대의 상단에 부합하는 견조한 성장이 예상, 주요 원인은 E&E (전기·전자) 수출 강세와 내수 소비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 인플레이션은 1.8%~2.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말레이시아-EU 자유무역협정(MEUFTA) : 2027년 최종 협정 체결을 목표로 첨단기술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무역분야 신규 기회를 창출차고 말레이시아-이탈리아 산업 연계와 관련하여 공급망이 강화될 전망

❁ 호치민지점

- 베트남 부동산 시장, 상반기 '거래절벽' 직면 : 공급증가 속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분양실적 저조, 전체 분양매물 10.2만여 호 전년동기 比 40% 상승한 반면 실분양 2.6만호 그치고 있어 MB 증권은 은행권 자금경색을 원인으로 지목
- 베트남, 2027년 '관광성장률' 아태 1위 전망 : 외래 관광객 2,780만 명 기대
- 스탠다드차타드, 베트남 경제 성장률 전망치 7.2%에서 9.5%로 대폭 상향
- 베트남 롱탄신공항, '9월 시범운영' 총력전에도 인력 2,000명 부족, 연말 개항을 목표로 일평균 7,100명 작업인부 동원하고 있으나 공정률은 78% 수준, (총사업비 160억 달러) 최종 완공시 년 1억 명 규모의 허브공항이 목표이나 1단계는 2,500만명 규모로 개항
- 베트남 은행권, '휴면 계좌' 대대적 폐쇄 돌입 : 명의 도용 익명 및 차명 계좌, 범죄조직 대표통장 활용 가능성이 있어 잔액 부족, 장기 미사용 통장 등 폐쇄 개시, 2025년 우리은행, 세콤은행, 군대은행 이어 내셔널은행, 록팻은행 장기휴면계좌는 통보없이 폐쇄할 수 있다고 예고

❁ 충칭지점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 하루 출도착 1,095 편으로 역사적 기록 달성 (인천공항 성수기 최고기록은 일일 1,284 편)

- 7 월 14 일 충칭시는 올해 첫 고온 적색 경보 발령, 일부 지역은 41℃에 달하였고 야외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40℃ 이상일 때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

❁ 상하이지점

- 상하이의 2026 년 상반기 대외무역 규모는 2 조 5,500 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EU , 호주,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교역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ASEAN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교역도 확대되며 수출시장 다변화 지속
- AI ,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선박 등 전통 제조업의 수출이 동반 성장하며 상하이 대외무역의 성장세를 견인

❁ 광저우지점

- 6.26(금) 광둥성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 월 광둥성의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제조업은 2.7% 증가, 주요 제품별로는 산업용 로봇 (+34.6%), 3D 프린팅 장비 (+53.5%), 집적회로 (+36.2%), 저장칩 (+60.6%) 등 첨단 제품 생산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신에너지차 (+32.4%), 풍력발전기 (+16.3%) 등 친환경 제품 생산도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광둥성 고정자산투자액은 전년대비 11.7% 감소 (부동산 개발투자를 제외한 고정자산투자액은 7.7% 감소된 것으로 집계)
- 광둥성 공안청은 7.1(수)부터 성(省) 전체를 대상으로 APEC 대비 특별 치안 단속 활동 진행중, 이번 조치는 △총기·폭발물 관련 범죄, △사회 갈등·분쟁, △드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점검할 계획이며, 단계별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의 책임 이행과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

❁ 선전지점

- 하드테크 분야 : 선전은 중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1 위 도시'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전면 확대하고 있으며 선전 난산 '로봇 밸리' 에는 이미 200 여개의 관련 기업이 모여 독특한 '30 분내 완성품 조달 생태계'를 형성

❁ 텐진지점

- 글로벌 해운업계의 권위있는 보고서인 '신화·발트해 국제해운센터 발전지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텐진의 종합 실력 순위는 2025년 대비 1단계 상승한 세계 17위를 기록했으며, 순위 상승속도가 해운계에서 주목을 받아 천진의 국제 해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냄
- 2026.7.15, '理想'호 크루즈선이 약 2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천진에 무사히 입국하면서

2026년 천진 크루즈 항구 출입국 승객 총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

❁ 파리지점

- 현재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어 우회 운행이 이루어지면서 남부 지역을 경유하는 트럭 운송 일정에 일부 지연 발생

물류동향 📌

❁ 서울지점

- 6 월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년 대비 +7% 성장하였으나 7 월 들어 하계 비수기·De Minimis 폐지·유류할증료 인하가 맞물리며 글로벌 평균 운임이 \$3.03/kg으로 3~4주 연속 하락 조정 중, 다만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24% 높은 수준
- 한국발 미주·유럽항은 7 월 중반부터 전자상거래 수요 둔화와 산업재 수요 일시 감소로 운임이 소폭 하락, 반면 반도체·AI 서버·전력기기 등 Capex 품목 수요는 구조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품목 중심의 스페이스 확보 경쟁은 지속될 전망
- K-과일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19.7%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K-POP 음반 수출도 +125% 급증하면서, 콜드체인·음반·굿즈 항공화물 수요의 점진적 확대가 기대
- 태풍 바비 (Bavi) 영향으로 중국발 일부 항공편이 결항되어 운임 추가 하락폭 둔화

❁ 부산지점

- 미주 항로는 가파른 운임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 유럽 항로는 희망봉 우회 및 성수기 진입으로 스페이스는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
- 8 월 안전운임제 변경내용 (시행 예정일 : 2026 년 8 월 1 일)
 - 최근 3 개월(2026.4.1.~6.30.) 유가 변동을 반영한 안전운임 조정
 -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운임표 변경
 - 평균 유가 적용 기준 및 부대조항 일부 수정
 - 터미널 간 전배운송 발생 시 적용되는 운임 요율표 신설

❁ 홍콩지점

- Cathay Cargo, 중동 화물기 운항 재개 : Cathay Pacific 중동 여객 및 화물 서비스 단계적 재개한다고 발표, 8 월 1 일부터 리야드행 화물기 운항을 재개하며, 9 월 1 일부터는 두바이행 여객기는 매일, 리야드행 여객기는 주 4 회 운항을 재개할 계획
- 터키항공 : 아부다비, 암만, 쿠웨이트, 바레인행 항공편 운항을 7 월부터 재개했으며 두바이 노선 운항 재개에 이어 암만과 베이루트 노선 운항 횟수 증편 및 중동 여객 네트워크를 완전히 복원한다고 발표

❁ 방콕지점

- 램차방항 기상 악화(폭우)로 항내 혼잡 극심 특정 주간 선박 접안 집중 시 일부 선박이 대체 터미널로 재배정되는 사례 발생
- BANGKOK PORT (PAT)의 트럭 대기 구역 확대, 게이트 처리능력 개선 등 혼잡 완화 대책이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대미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으로 혼잡 상황 지속
- 태국-한국구간 해상운임 — EFS (긴급유류할증료) 폐지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나 LSS-GRI 인상 요인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 흐름 지속
- 항공 화물 : 중동 경유 항공편 점차 회복 중이나 운임은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남부 지역의 두리안 출하가 지속되면서 신선화물 우선 탑재되어 일반 항공화물은 최소 4~5 일 전 사전 예약 필요
- 트럭 운송 : 우기 강수 집중 기간 (7 월 말~9 월)중 동부·남부·중부 내륙 운송 지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

❁ 호치민지점

- OZ 여객기 W/BODY 전환 이후 SGN 발 SPACE 문제없으며 항공운임도 큰 변동은 없으나 FSC 하락 추세
- 항만 적체는 큰 개선없이 보통 2~3 일 정도 지연, 한국행 해상 운임 하락 추세

❁ 페낭지점

- 포트클랑 (특히 웨스트 포트) 장치장 적체 현상이 7 월 이후 75%수준으로 정상화, 항만 당국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무료장치기간 (Free Storage)을 단축하고 장기체류 컨테이너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였고 또한 26 년 들어 적용된 포트클랑의 항만요금인상 조치가 하반기 해상운임 및 현지 포워딩 비용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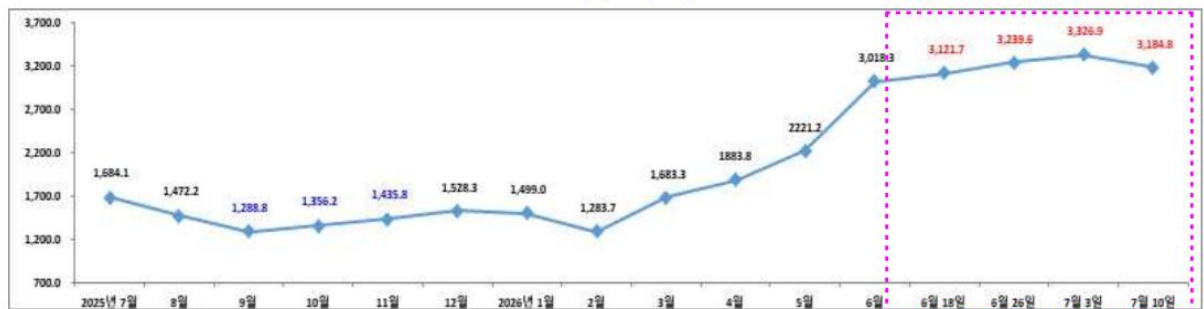
- 포트클랑 웨스트포트는 CT1~CT17 터미널을 단계적으로 추가 건설하는 확장프로젝트를 본격 진행 중 (기존 1,400 만 TEU→최종 2,800 만 TEU), 26 년 3 분기중 추가 야드 공간이 공급된 예정으로, 하반기 Peak Season 에도 입항 지연이나 정체 리스크는 낮아질 전망
- 항만 자체의 처리는 원활해졌으나 포트클랑에서 셀랑고르 (Subang Jaya, Shah Alam 등) 및 클랑밸리 주요 창고로 이동하는 내륙 육상 수송 (Road Freight)의 도로 정체 및 운송비 상승 중, Shopee 등 이커머스 창고 및 현지 풀필먼트 센터로 이동하는 화물 급증이 주요 원인

충칭지점

- 충칭 세관 발표에 따르면 26 년 상반기 충칭시 무역 총액은 전년동기 대비 31.9% 증가한 4,812 억위안 (96 조 2,400 억원)을 달성하였고 그중 수출은 전년비 34.6% 증가한 3,393 억위안 (약 67 조 8,600 억원)
-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은 상반기 국제(지역) 화물처리량은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6 월 말 기준으로 실제로 운항 중인 국제화물 항공편은 총 26 개 목적지에 주간 83 편을 운항하여 유럽, 아시아, 북미 핵심 경제권을 운항
- 상반기 서부 육해신통로를 통한 수출입액은 287 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
- "상해-충칭 직통 고속선" 무역 정기선이 지속적으로 운항하여 충칭에서 제조된 신에너지 자동차와 기계전기 제품이 양자강을 통하여 상해항으로 직항해 선박 환적후 해상수출됨

상하이지점

- 7월 10일 기준 3,184.82 포인트로 전주 대비 4.3% 하락, 미주 유럽 중동 등 주요 항로 운임이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모습



- 유럽 노선은 EU 저가 수입품 면세제도 폐지와 전자상거래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전자제품 등 고부가가치 화물 수요가 시장을 뒷받침하며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
- 미주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일부 인하되었음에도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조기 선적 수요가 시장을 견인

- 아시아태평양, 중동, 인도 노선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대양주 노선의 운임도 최근 다소 안정세

🌸 광저우지점

- 북미 : 전자상거래 물동량 감소로 전체 수요 소폭 둔화, 미 서부는 공급이 유지되며 공급과잉이 심화돼 운임 하락세가 지속된 반면, 미 동부는 일반 산업재 및 설비자재 수요 유지로 운임 하락폭 제한
- EU De Minimis 면세 폐지 영향으로 중국발 유럽항 항공화물 수요 감소, 태풍 Bavi 영향에 따른 일부 항공편 결항으로 운임 하락폭은 제한적
- 프랑크푸르트항 일반화물 출하량 큰 폭으로 감소, 암스테르담항 전자상거래와 일반화물 수요 모두 감소세인 반면,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자동차 부품 중심의 출하 지속
- EU는 7월 1일부터 역외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이하 소포에 품목당 3유로의 임시 통관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번 조치는 2028년 통합 세관 시스템(EU Customs Data Hub)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통관비용 증가와 일부 회원국의 추가 수수료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 물류업계는 제도 준비 부족에 따른 공급망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Xeneta 역시 올해 전자상거래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EASA(유럽항공안전청)는 이란·이라크·레바논 영공에 대한 운항 자제 권고를 연장하고, 중동 주요 국가 영공에 대해서도 강화된 주의를 유지할 것을 권고,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항공사들의 우회 운항이 지속되면서 중동 및 아시아 노선의 공급 정상화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반면 중동계 항공사는 운항 및 기재 운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항공 공급은 안전성 확인과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해상] 아시아-북미·유럽항로 스팟운임 강세 지속 : 7/1부 GRI 시행 및 BAF 인상으로 추가 상승,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항공사들의 중동 노선 운항 중단과 우회 운항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유럽 등 주요 노선의 공급이 감소했고, 일부 화주들은 해상운송 차질을 피해 항공운송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공 차터 (전세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임도 상승세를 보임
- [해상] 아시아 주요 항만 적체 심화 : 중국 기상 악화 · 선박 집중 입항에 기인
- 중국내 악천후와 선박 집중 입항으로 아시아 주요 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 밀어내기 수요 증가와 운항 스케줄 차질이 맞물리면서 상하이, 닝보, 옌티안, 싱가포르, 부산, 콜롬보항 등이 주요 병목 지점으로 지목, 특히 상하이 양산항은 선박 접안 대기 시간이 최대 5일에 달하고 있으며, Gemini Cooperation(MSK·HPAG) 소속을 제외한 서비스 노선 선박들은 평균 96~120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등 운영 차질 확대

- [해상] 엔트워프항,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핵심 터미널 폐쇄 : 공급망 차질 우려
- 7월 14일 엔트워프항 Deurganck 부두에 정박 중이던 컨테이너선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현장 작업자 15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유럽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인 MPET와 DP World Antwerp Gateway 등 핵심 항만시설 전면 폐쇄, Kuehne+Nagel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항만 폐쇄를 넘어 화물 하역과 엔트워프항 배후 내륙 운송망 전반에 심각한 연쇄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선전지점

- 7월~8월은 항공 화물 운송의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할 수 있으나 올해 선전 항공운송 시장은 AI 산업 체인의 폭발적인 성장의 영향으로 항공수요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일부 물류 기업의 2026년 상반기 AI 관련 화물 운송량이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으며 SF 항공의 AI 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 대외 무역 회복에 힘입어 5월 선전항의 미주 수출액은 716억 9,000만 위안 (약 1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미주행 수요가 집중되면서 선사들의 운임 인상이 이어지면서 미서안 노선 운임은 1TEU당 5,800달러에 육박하고, 미동안 노선은 7,200달러에 근접하는 등 거의 2주마다 1,000달러씩 인상되는 추세
- 선전에서는 최근 다수의 포워더가 저가 수주로 인해 자금 체인이 끊기거나, 심지어 자본 잠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 한 사례에서는 포워더가 운송사에 300만위안 (약 5억 8,000만 원)의 운임을 체불하는 바람에 1만 7,000여 건의 화물이 압류되었고 판매자들은 화물을 찾기 위해 운임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상황에 직면 (2026년 1분기, 선전에서만 약 30여 개의 포워더가 부도 처리)

❁ 청다오지점

- 미국의 수입 수요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성수기 동안 트랜스퍼시픽 해운 항로의 선복량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운임도 높은 수준을 기록, 선사들은 3~4 주전 스페이스 부킹을 완료할 것을 권장
- 7 월 중순부터 블랭크세일링(결항)과 싱가포르, 포트클랑 등 환적 거점 항만의 혼잡이 실제 가용 선복량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Off load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음
- 아시아 지역 항로는 경쟁이 비교적 치열하나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반면 유럽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로테르담 항만의 혼잡과 높은 균일운임 (FAK) 및 성수기 할증료 (PSS)가 주요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

❁ 텐진지점

- 7 월 1 일부터 중국의 9610 (중국 세관의 B2C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전자상거래 수출화물을 대한항공 화물기를 이용해 호주로 보내는 신규 물류 루트 개통
- 7 월 8 일, MSC 소속 '지중해 로레나' 호 멕시코 MEXICAS 직항 노선에 첫 취항, 본 노선은 5,000TEU 선박 7 척을 투입하여 천진—한국—멕시코—천진을 연결하는 서비스로 운영, 기존 한국 경유 환적 방식 대비 운송 기간을 약 30 일에서 약 18 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연간 수출 물동량은 약 6 만 TEU 증대될 것으로 전망, 주요 수출 화물은 자동차 부품 및 생활용품이며, 수입 화물은 북미산 동광석·아연광 및 아보카도·베리류 등으로 해당 노선은 화북 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최단 항로 중 하나로 평가

❁ 파리지점

- FSC 운임 인하 (KE/KJ) : 7월1일부 EUR 1.35/KG → 8월1일부 EUR 1.25/KG
- 해상 EFS (Emergency Fuel Surcharge)는 변동 없이 현수준 유지

주요 항공사/선사 스케줄 변동사항 📌

❁ 서울지점

- 7 월 16 일부 적용중인 현행 유류할증료(FSC)는 16 단계 적용 (장거리 1,030 원, 전기 대비 450 원 인하) 중이나 중동지역 재긴장에 따른 유가 반등 가능성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카고룩스 : 중동항 화물기 운항 재개를 무기한 연기, 중동 경유 공급의 정상화 지연
- 엔트워프항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26.7.14) 로 유럽 최대 MPET 터미널 등이 폐쇄되어 유럽항 화물의 단기 내륙 운송망 차질 예상
- 티웨이항공 : 상반기 화물 +37% 성장, 하반기 A330-900NEO 도입으로 장거리 LCC 발 공급 확대 예상

❁ 홍콩지점

- HONGKONG AIR CARGO, HKG-TPE A330-200F 운항 (2026. 8.11 ~12.31), (6/W, D234567)
- OOCL 신규 중국-호주 고속 순환선 (A3X) 출시, A3X 서비스 도입으로 OOCL은 A3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주 4회 운항을 제공
 - Southbound : Qingdao – Shanghai – Shekou – Melbourne – Sydney

❁ 방콕지점

- LJ는 예전과 동일하게 Daily 운항 중이나 XJ (AIR ASIA), TW는 현재까지 운항 재개 예정 없음

✿ 폐낭지점

- KE : 화물기 주간 6회 운항에서 7월부 DAILY로 증편된 이후에도 장거리위주의 판매로 아시아항 SPACE는 부족한 상황이 지속

구분	Mon.	Tue.	Wed.	Thu.	Fri.	Sat.	Sun
PEN	KE8392	KE364	KE342	KE8374	KE364	KE374	KE350
	09:15-19:25	11:45-19:15	08:20-18:40	12:15-19:35	11:45-19:10	10:15-17:30	10:50-18:15
	FRT	FRT	FRT	FRT	FRT	FRT	FRT
KUL			KE382		KE390		
			11:30-19:05		08:25-18:45		
			FRT		FRT		
	KE428	KE428	KE428	KE428	KE428	KE428	KE428
	23:20-07:00+1	23:20-07:00+1	23:20-07:00+1	23:20-07:00+1	23:20-07:00+1	23:20-07:00+1	23:20-07:00+1
	PAX	PAX	PAX	PAX	PAX	PAX	PAX

✿ 상하이지점

- KJ : 8월에도 7월에 이어 PVG-ICN 구간 일부 스케줄 Half Charter로 운항할 예정

✿ 칭다오지점

- 산둥성-인천 구간 화물기 운항 현황

출발지	운항 항공사	기종	운항 빈도
칭다오(TAO) → 인천(ICN)	산둥항공(Shandong Airlines)	B737F	매일 운항  Flightmapper
옌타이(YNT) → 인천(ICN)	순평항공(SF Airlines)	B757-200F	주 5회  연택시 정부
옌타이(YNT) → 인천(ICN)	인천항공(Air Incheon)	화물기	정기 운항  연택시 정부

✿ 텐진지점

- TSN-ICN, KJ 화물기 8월부 정상운항 (5/W, D245 - B737F, D3 - B747F, D6 - B767F)
- 텐진지점 해운 서비스
 - ONE : 동남아, 인도 항로에 경쟁력 (FREQUENCY, 빠른 환적과 탑재 보장)
 - EMC :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목적지에 서비스 탁월
 - CMA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소크나 (Sokhna)를 통한 지중해 전역

✿ 파리지점

- TW 8월 결항 일정 : 15일, 16일, 29일
- HMM, ONE, YML : 기존 FE4 노선 기항지 축소, LE HAVRE → SHANGHAI → BUSAN (T/T 44-49 DAYS)

기타 공지사항



❁ 서울지점

- 파나마 운하 흘수 제한 : 7/24 부 49.0ft → 8/15 부 48.5ft 로 단계 강화(엘니뇨 대응), 미 동부항 일부 화물의 서부 우회 또는 항공 전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CPSC eFiling (7/8 시행) : 완구·가전 등 소비재 미주 선적 시 통관 인증정보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어 서류 미비에 따른 통관 지연 가능성 상존
- 대한항공 신고 강화 : US CBP 점검 강화에 따라 미주항 ACAS·AMS 품명·수량의 정확한 기재 필요
- 물류 전문가의 52%가 올해 4 분기가 전년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

❁ 상하이지점

- 상하이/닝보 항만은 연중 발생하는 출항 지연에 더하여 최근 태풍 등 기상 악화의 영향으로 선박 접안 및 출항 지연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선적, 운송 일정에 충분한 리드타임 필요